



建設技術資料 열람 안내

有償으로 기술제공 주선

한일건설협력 협의회는 양국 건설업계 간의 국제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자료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측에서는 자국내 16개 건설회사에서 한국측에 유상 제공 자료로 67개 항목 110종의 기술자료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대한건설 협회는 그밖에 일본 유력 건설회사가 발간한 기술년보, 특수공법 책자와 기타 외국의 참고도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유상제공 기술항목 가운데 도입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공회사와의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유상제공이 가능한 자료 가운데는
 ● 태양열 냉난방 급탕 시스템 ● 지역 냉난방 계획 시스템 ● 공장환기 집진 시스템 ● 주광조명 설계 ● 태양 에너지 건축의 설계기술 등 각종 공법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목록은 본협회 기술부에 비치되어 있음).

都市설계技法 적용키로

서울시 年内 基本계획 확정

서울시는 開浦地区和 可樂地区에도 도시설계 기법을 적용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지역의 도시설계를 위한 用役을 곧 発注, 年内에 기본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도시설계가 적용되는 地区 중 開浦地区는 4만여坪의 中心商業 地区를 비롯, 區劃整理地区에 확보된 상업지구와 연립주택 단지가 모두 포함되고 남부순환도로 등 간선도로변의 일부

단독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可樂地区는 잠실에서 성남시로 나가는 松坡大路邊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립경기장으로 나가는 간선도로변, 국립경기장과 올림픽선수촌 주변, 오금公園周邊 地域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도시설계가 지금까지는 시내 중심지와 간선도로변 등 주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마련 됐으나 開浦·可樂地域에서는 단독주택지역까지를 포함, 건물의 규모와 外壁材料, 지붕모양 등을 사전에 규정,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축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開浦와 可樂地域은 區劃整理地区로서 지역별로 토지이용도는 지정 됐으나 건물의 규모, 모양 등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시는 開浦와 可樂地域이 아파트는 이미 대부분 완공됐거나 건축 계획이 확정됐으나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은 상·하수도 도로 등 基盤施設이 완비되는 올 하반기 부터 건축행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도시설계를 서둘러 마련, 대상지역 건축물은 모두 도시설계에 맞춰 짜임새 있게 건축하기로 했다.

宅地公營개발 供給계획

건설부 오는 86년까지 造成

건설부는 올해부터 86년까지 총 사업비 2조 2천775억원을 투입하여 택지 59.63km²를 公營開發制에 의해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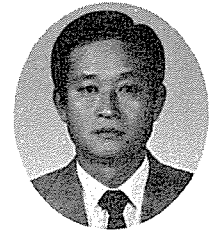
건설부는 날로 심화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대단위 주택지를 買入, 조성하는 한편 개발에 의한 이익금을 재투자하는 택지공영개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공영개발 제도는 현재 서울木洞, 新亭洞地域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오는 8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5.13km² 토지개발 공사가 26.2km², 주택공사에서 8.3km²를 개발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조성 규모는 100만평 이상으로서 도시 및 隣近地

鄭淳虎국장 취임

建設部 住宅局長에



건설부 주택국장에 鄭淳虎신임국장이 취임했다.

정부는 구랍 21일 崔炳勳 전주택국장 후임에 건설부토지구장과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바 있는 鄭淳虎 국장을 전보발령했다.

한편 崔炳勳 전 주택국장은 해외건설국장으로 전보되었다.

신임 鄭淳虎국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획관
- 토지구장
-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 국방대학원

域의 대단위자연녹지, 山地와 도시내의 대규모 미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토지이용도변경시에는 공공기관이 買取해서 개발한다는 원칙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매년도별로 18~20km²를 개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에 택지 매입 및 조성비로 7천 263억원, 明年度에 7천619억원, 그리고 86년도에 7천8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되는 택지 중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개발분은 직접 주택까지 신축하여 부양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또 다른 택지공영 개발에 재투자케 되며 토지개발공사는 주택건설업체에게 택지를 부양토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택지의 공영개발 제도가 확대되면 택지난이 다소 해소되고 개발지 주변의 투기도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할 택지개발 사업은 서울지역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화조설치 規程 강화

서울시 허가때 업체선정 신고

서울시는 淨化槽施設의 不實을 막기 위해 건축 허가 때 사전에 淨化槽 시공업자를 선정, 신고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종전에 建築士가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중간 검사토록 하고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淨化槽도 준공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축 허가 때 淨化槽 설계를 添附하면 설치신고로 看做했고 시공 감독은 建築士에게 맡겼으나 淨化槽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설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 올 3만가구 건립

宅地難으로 공급줄어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등 모두 3만6천1백 가구의 주택을 건립키로 했다.

서울시가 확정된 올해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8천1백가구, 연립주택 1만3천가구, 단독주택 1만5천 가구를 건립키로 했다.

이같은 주택공급량은 지난해 계획량 5만가구에 비해 28%가 줄어 든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연간 4만5천~5만5천 가구를 건립해 오던 서울시가 올해는 이처럼 공급량을 축소 조정한 것은 그동안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 하던 아파트가 택지난으로 인해 신규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만 가구를 건립키로 했던 아파트가 올해는 8천1백 가구로 크게 줄었고 대신 단독주택은 지난해 7천 가구 계획을 올해는 1만5천가구로 늘렸다.

올해 서울시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공공부문에서는 고덕지구에 건립중인 2천5백가구의 시영아파트와 구로동의 주공아파트 9백여 가구가 공급되고 민간부문에서는 택지난으로 건립 물량이 크게 줄어 가락지구에서 4천

여 가구와 영등포 등 일부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뿐이다.

民俗藝術전당 착공키로

서울시 잠실 석촌공원에

서울시는 잠실 石村湖水公園에 우리나라의 傳統民俗을 소개하는 民俗藝術殿堂을 세우기로 했다.

총공사비 3억5천만원을 들여 건설할 이 民俗館은 잠실 石村湖水 西쪽 垜地 2천 881坪에 藝術館과 놀이마당 및 觀覽席으로 이루어진 民俗藝術殿堂을 이달 中旬 착공, 한가위날인 民俗名節인 오는 9월10일 완공, 開場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생기는 이 民俗藝術殿堂은 藝術館이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건평 170坪 규모인 놀이마당이 213평, 스탠드가 398평이다.

藝術館에는 무대와 연습실 분장실 등 공연에 필요한 附帶施設이 들어가며 스탠드는 2천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이 民俗常設 공연장은 野外公演場으로 농악은 물론 松坡산대놀이, 北靑사자놀이, 民謠競演大會, 씨름大會 등 모든 傳統民俗 놀이를 할 수 있게 시설이 갖춰져 있다.

서울시는 이 공연장의 이용과 관람을 無料로 할 계획이다.

市는 오는9월 民俗公演場 完工을 앞두고 각 民俗團體들과 협의, 民俗公演場 활용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짚 방침이다.

大型백화점 5~6개 신축

롯데쇼핑 등 새 建物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상당수의 새 백화점들이 신규 개점되거나 착공돼 국내 유통업체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활기를 띠는 것이 예상된다.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여의도 백화점·영등백화점·부산의 태화쇼핑·부산백화점·안양의 안양본 백화점 등이 개점한데 이어 올해도 전국적으로 5~6개의 신설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유통업체의 제2

백화점 개설 및 착공이 활기를 띠어 신세계의 영등포 제2백화점, 뉴코아유통의 새뉴코아 백화점, 대구 동아백화점의 제2백화점 등이 모두 연내 완공돼 유통업체 판도 개편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 창원진흥 기업이 강동구 성내동 57의 3 일대에 연건평 5천여평 규모로 짓고 있는 유니버스 백화점이 상반기 중 직영체제로 문을 열 예정이며 롯데쇼핑도 기존백화점 건물 옆의 산업은행 부지를 헐고 곧 백화점 및 사무실 용도의 새건물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은 새로 신축할 건물을 기존백화점 건물의 옆면과 맞붙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국제적 규모의 초대머드 백화점으로서의 운곽을 드러낼 것이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도 그동안 검토해 온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내 2만여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센터 건설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모의 경쟁도 점차 가열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삼미유나 백화점이 서울 三一路빌딩 지하에 백화점형태의 전문 아케이드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도 신축 중인 대형빌딩의 완공과 더불어 지하아케이드 개설분이 일 것도 예상되고 있다.

연내 건물완공과 더불어 백화점 형태의 대형 지하아케이드 개설 계획을 확정된 빌딩만 해도 삼성그룹의 태평로 동방생명 빌딩을 비롯, 국제 그룹사옥, 대한생명의 여의도 63층 빌딩, 롯데 다동빌딩 등 4~5 개에 이르고 있다.

